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8호 [루게 제24366호] 주제102(2013)년 11월 14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디마스끄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각하

나는 수리아에서의 시정운동 43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수리아아랍인민의 정의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주제102(2013)년 11월 13일

김정일각하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각하회고위원회가 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회 위원장 에두아르드 크나프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주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김정일각하회고 에리오피아위원회가 8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 서기장

위원회 위원장 니가투 다그나체우와 서기장 메드하레 멜레사 각각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주에 즈음하여

그이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사적사업과 보건사업에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혁명사적사업과 전국에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세우는데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호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보건경영연구소 실장 손창호, 연구사 최경순, 조수 정은경은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확대정비하고 정상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우리 식의 새로운 먼거리수술지원체계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신성 처장 최민철, 정보통신연구소 실장 김명훈은 먼거리수술지원체계를 중앙병원과

백두산철새위인들에 대한 백옥같은 충정을 안고 백도라지와 아름다운 꽃들, 잔디를 심고 개건보수공사에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한 등 만경대혁명사적지를 더욱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호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보건경영연구소 실장 손창호, 연구사 최경순, 조수 정은경은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확대정비하고 정상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침으로써 우리 식의 새로운 먼거리수술지원체계를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제신성 처장 최민철, 정보통신연구소 실장 김명훈은 먼거리수술지원체계를 중앙병원과

도, 시, 군인민병원들에 수립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상수문군 산하단위 기사들인 김남식, 김주성은 이미 세워진 먼거리의료지원체계를 새로 개발한 먼거리수술지원체계를 우리 식으로 결합하여 협의와 수술지원이 동시에 진행되게 함으로써 의료봉사의 전문화와 질적수준을 보다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의 무한한 행복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산철새위인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는데 모든것을 바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6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사는 경애하는 중국 보도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명록동지의 서거 3주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혁명사적관에 있는 《최고사령관과 전교원》을 찾아보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시된 조명록의 사진들과 유품들을 보시면서 그와 영결하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벌써 3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조명록은 김정은총비서의 귀중한 혁명동지, 혁명전우였다고 하면서 조명록이 서거한 날을 맞고보니 그가 못 갔다 그 날이 이곳을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혁명전사들의 신념과 의리가 어떤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게 《전우관》을 꾸림으로써 그들의 고결한 사상정신세계를 조선군대와 인민들에게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중국의 홍콩 방송위성TV방송, 《대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보도망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강신문》, 프랑스신문

《몽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또다시 돌아보신 소식을,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는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부대 용사들의 묘를 찾으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중국, 타이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조선중앙통신】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달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해나가는 역사적인 시기에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가 13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조국을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지난 10년간의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앞으로의 과업과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과학자, 기술자들, 3대혁명조원들, 당기관, 근로단체,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도, 시, 군인민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장인 4.25문화회관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과학과 기술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려는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의로 뒤흔어졌다.

대회장 전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일성조국, 김정일장군님의 나라를 김정은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과 기술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박봉주동지, 최태복동지, 오국철동지, 박범기동지, 문경덕동지, 로두철동지, 도당책임비서들, 당, 무력, 성, 중앙기관 일군들, 과학, 교육부문, 공장, 기업소, 농장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석단에 나앉았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과학기술발전에서 전철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로작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혁명령도의 전기간 언제나 과학기술을 중시하시고 그 발전을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셨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로작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로작에서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당과 조국앞에 지닌 사명감과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성파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며 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하고 강조하시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때에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를 가지게 된다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가다다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봉주동지가 보고하고 강조하시었다.

보고자는 정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때에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를 가지게 된다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지난 10년간은 주제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고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파시된 날이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기술을 사상과 총대와 함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시었고 과학기술중시를 당의 전략적로선으로 정해주시었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셨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과학기술발전전략과 전망계획을 작성실행할 데 대한 문제 등을 밝혀주시었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결합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주시었으며 과학자, 기술자적대운동을 비롯한 언제나 과학기술을 중시하시고 그 발전을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셨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었다.

과학연구기관들과 대학,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신데 과학기술발전의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고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시었다.

국가 과학인 생물공학분원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원산농업종합대학 등 많은 과학교육기관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게 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나라의 보배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었으며 과학기술발전에서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와 명예칭호를 안겨주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로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일단결과 불패의 권력에 새 세계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는 고전적정신화를 내놓으시고 새 세계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라는 과학적혁명을 주시었다.

국가과학원 중앙비석연구소를 비롯한 현대적인 과학연구기지를 건설하고 국가적인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세우도록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

과학자들이 그러는 설계모우에 조국의 앞날이 그러하며 과학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선구자로 내세워주시었다.

과학자들에게 힘과 지혜, 담력을 안겨주시며 영웅적위훈을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고 당중앙위원회총서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사랑의 전설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은 과학의 령마루에 머물어주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생활을 잘 돌봐주시는 조국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은하과학자거리도 최상의 수준에

서 건설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 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한 근본원천이었다.

지난 10년간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관철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힘과 기술로 최첨단과학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위성을 제작발사하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인민경제의 주체,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주체철생산도대가 마련되고 주체철선유와 주체비료, 우리 식의 마그네사크림과 타이생산기자들이 일떠서 생산생활화의 동음을 울리고 있다.

초고전력전기로, 대형산소분리기와 같은 수많은 성능높은 기계설비들이 개발되어 경제의 자립성이 튼튼히 다져졌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순천화학련합기업소, 단천제련소, 대동강타일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중요생산공정과 설비들이 현대화, CNC화되어 있다.

기업관리와 경영관리의 정보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컴퓨터기술과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원격교육체계가 먼거리의료봉사체계가 구축되어 활발히 운영되고있다.

농업과 경공업부문에서 다수확농작물품종들이 육성되고 효능높은 유기질비료와 생물농약들, 새로운 농작물재배기술들이 개발되었으며 인민소비품생산기자들이 꾸려진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고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적인 사업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중요과학지구와 대학들에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의 과학자, 교원들은 인민경제 중요부문의 기술개발을 다그치고 생산을 활성화하며 단련함과 대개도간격, 미루벌목질 등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2월17일과학자, 기술자적대원들과 4.15기술혁신적대원들, 3대혁명조원들은 공장, 기업소, 농작물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벌려 새혁의 기계설비와 장치들을 개발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최첨단과학자들과 함께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밀고나가는 높은 수준에 올려세웠다.》

보고자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제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체조선의 위력을 파시하는데 기여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을 달음쳐가고있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높은 실적으로 여러차례 기쁨을 드린 과학연구기관과 부부영웅과학자, 부자영웅과학자들의 모습에서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라설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지난 10년간 이룩된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 작품품종들이 육성되고 효능높은 유기질비료와 생물농약들, 새로운 농작물재배기술들이 개발되었으며 인민소비품생산기자들이 꾸려진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적인 사업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중요과학지구와 대학들에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적인 사업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중요과학지구와 대학들에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적인 사업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중요과학지구와 대학들에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못할 요새가 없다는 신심을 백배해 주고있다.

보고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의 다짐없는 힘과 열의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셨으며 새 세계 과학기술발전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최첨단과학자들과 함께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과학기술적으로 밀고나가는 높은 수준에 올려세웠다.》

보고자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제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체조선의 위력을 파시하는데 기여하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과학탐구의 길을 달음쳐가고있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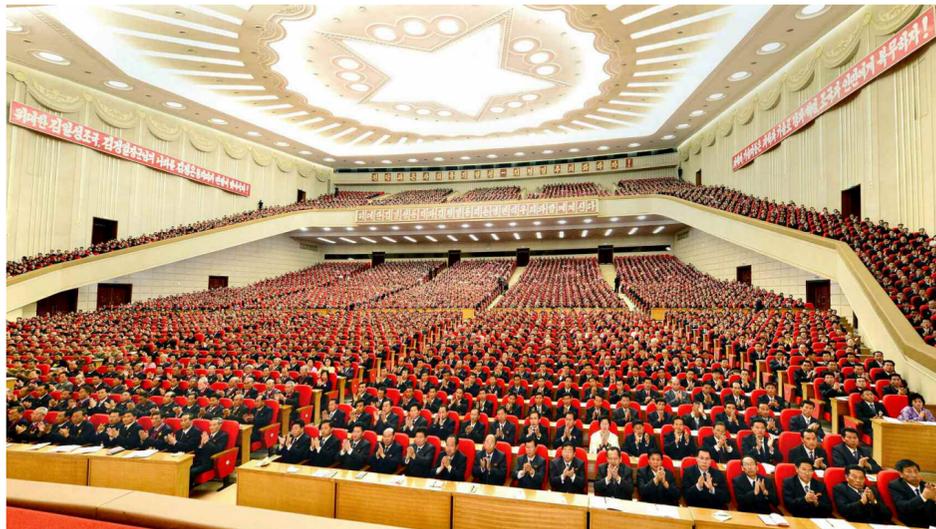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 높은 실적으로 여러차례 기쁨을 드린 과학연구기관과 부부영웅과학자, 부자영웅과학자들의 모습에서 짧은 기간에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라설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지난 10년간 이룩된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 작품품종들이 육성되고 효능높은 유기질비료와 생물농약들, 새로운 농작물재배기술들이 개발되었으며 인민소비품생산기자들이 꾸려진 인민생활을 높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적인 사업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중요과학지구와 대학들에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적인 사업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중요과학지구와 대학들에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적인 사업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중요과학지구와 대학들에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과학기술발전에 돌리신 뜨거운 은정

시대의 벽한 줄기에 강산을 뜨겁게 감싸안는다. 위대한 어머니당의 전통적 호소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강성국가건설승리의 언덕으로 치달는 총진군대에 전진의 기상, 힘찬 발자취를 들려준다.

인민의 꿈을 더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도처에서 최첨단과, 《마시명숙도》 창조, 열풍,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꽃을 세차게 일으키며 도도히 전진하는 이 대오에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이 있다.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명도따라 위대한 조국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는 력사적인 시기에 열린 이번 대회는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으로써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전변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만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은 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과학기술성공이 련이어 이루어지고 선군조선의 국력이 비상하게 강화되고 있음을 뜨거운 각성속에 새겨안으며 절세위인들께 격정 충만한 경의와 감사사를 드리고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가장 혁명적인 우리 사상, 우리 총대에 최신과학기술이 결합되면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변혁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불멸의 강국으로, 모든것이 흥하고 번영하는 참다운 인민의 력원으로 전변시키게 될것입니다.》

지금도 조용히 귀 기울이면 들려오는 듯하다.

어머나 수령님 탄생 100돌경축 열병식장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명도이래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침략자들을 진멸케 하는 무적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며 온 세계앞에 선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우렁차고 웅장한 음성이다.

독사기술적수위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손에 쏘이지 않음에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의 힘에 대한 끝없는 긍지,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에 대한 커다란 민족적자부심으로 온몸이 세차게 달아오르

던 그 시각 사무치게 절감한것은 무엇이었던가.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 이는 곧 어머니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을 지니시고 단 한결음의 양보도, 순간의 주저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선군의 한결을 변함없이 이어가시는 신념과 의지, 천리해안의 예지와 탁월한 지략, 무한한 헌신과 로고의 결정체라는 것이다.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는 쉽게 이루어졌것이 아니었다.

우리 어찌 잊을수 있오랴.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크고 과학은 실험실에서 추구해오른다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한겨울의 혹한과 강설속에서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리도록 지혜와 담력을 가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결은 인공과 사람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믿음과 사랑속에서 우리의 미더운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를 굽어보는 민족적자존심과 야심만만 배짱을 가진 우주정복자로 자라날수 있었고 윤반로케트의 발사장치로 제단분리로부터 인공지구위성의 궤도 진입에 이르는 전과정을 사소한 부족점도 없이 완전성공시키는 쾌승을 이룩할수 있었다.

정녕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안아오신 위대한 승리였다. 그런데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에게 그 모든 영광과 행복을 통째로 안겨주시었다.

그들을 위해 성대히 마련해주신 연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 나라의 첫 기관단총으로 시험사격을 하신 력사적인 날에 위대한 위대한 유훈을 받들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를 완전 성공시킨 동지들이야말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참된 전사, 제자라고 온 나라가 떠받들어야 할 영웅중의 영웅들이며 동지들과 같은 참된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 조국이 강대하고 우리 당의 혁명위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과 인민은 오늘 대경사를 안아온 동지들의 영웅적위훈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천세만세 존엄높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력사에 불멸의

글문자로 찬연히 아로새길것이라고 크나큰 기쁨과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선군조선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두고 외국인의 한 저명한 인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었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기술로 개발하여 발사한 위성이 자기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는 소식이 접한 우리는 조선이 우주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거대한 성과에 대한 경탄과 함께 나라의 발전을 위해 바치신 김정일명도자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의 현명한 명도와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절감하면서 조선의 성과적위성발사에 전적인 지지와 반대성을 보인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인민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조국명우에 솟아오르는 대거비미적중폭물과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께 드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대의 경의였고 최상의 선물이였다.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며 삼천리강토에서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과학기술발전을 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더욱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현명한 명도로 의하여 선군의 내 조국은 과학기술의 용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고있다.

주체조선의 자랑인 우리의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돌파하는 빛나는 성과가 나라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있다. 가장 혁명적인 우리 사상, 우리 총대에 최신과학기술이 결합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변혁이 이루어지고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모든것이 흥하고 번영하는 참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어가고있다.

사상으로 억척불변하고 과학기술로 위력한 강대해 나라, 당의 두리에 친접민족으로 뭉친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로 어머

니랑을 받들어갑 붙같은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일 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헌신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일찍부터 우주정복의 위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초행 길을 헤치신 어머니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얼마나 거대한것인가.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고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랑찬 과학기술성공과로 남을 따라 눈부신 기적을 창조해가시는 우리 조국의 오늘을 현실을 보시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리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류경주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조국명우에 솟아오르는 대거비미적중폭물과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께 드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대의 경의였고 최상의 선물이였다.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며 삼천리강토에서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과학기술발전을 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더욱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현명한 명도로 의하여 선군의 내 조국은 과학기술의 용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고있다.

주체조선의 자랑인 우리의 과학기술이 최첨단을 돌파하는 빛나는 성과가 나라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있다. 가장 혁명적인 우리 사상, 우리 총대에 최신과학기술이 결합함으로써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변혁이 이루어지고있으며 내 나라, 내 조국은 불패의 강국으로, 모든것이 흥하고 번영하는 참다운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어가고있다.

사상으로 억척불변하고 과학기술로 위력한 강대해 나라, 당의 두리에 친접민족으로 뭉친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로 어머

애국자의 감동은 칭호

애국자!
이성스러운 부름과 함께 내 조국땅 그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었다.

그들 한사람한사람을 소중한 추억속에 떠올려볼 때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모두가 애국자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강한 모습도 어려웠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굳게 믿고 야기하며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내세워줌으로써 그들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주제 100 (2011)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현장을 다 바쳐 일떠세운 귀중한 창조물이었다.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종전의 태양열온실에 비해 온도를 5°C이상 높여 안전하게 남새를 생산해내는 무난방막막온실들을 꾸려놓음으로써 남새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비상한 창조정신과 애국적열의가 없이는 이런 일을 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해주시었다.

장내에는 뜨거운것이 격랑쳤다.

용당 하여야 할 일을 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성과를 애국적소행으로 내세워주시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서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각종 남새들의 생산공정과 영양액비료공급, 환경계통을 조종하는 컴퓨터조종실에 둘러싸였을 때에도, 푸르싱싱하게 자라는 오이, 도마도, 고추를 비롯한 열매남새들과

가두배추, 부추, 전채 등 갖가지 일남새들을 보시면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과학연구성과로 당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었다는 이룩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적열정과 재능, 남보라는 수고를 깊이 헤아려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연구소에 펼쳐진 희한한 광경을 바라보시면서 시작이 절반이라고 이 연구소를 내은 자 잊고저 같은데 벌써 세 품종의 여러가지 남새들을 연구하여 생산을 하고있다고, 오늘 여기에 와서 좋은 소식을 보았다 하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인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튼튼한 과학기술로대를 마련하고 남새생산을 늘여가고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모두가 애국자들입니다.》

(모두가 애국자들이라니?!)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눈곱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남새과학연구기지를 몸소 밟아보고서 일떠세워주시는본도, 설비보장문제로부터 온실의 온도보장문제와 물보장, 시험포전과 종자문제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는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그러시고도 그 모든 성과물을 고스란히 자기들에게 안겨주시는것이 아닌가.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애써 누르며 심장으로 꿰차였다.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 가장 위대한 애국자는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이 땅에 무궁번영하는 강성국가를 일떠세워나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입니다!

그렇다.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밑에서 과학탐구의 종자를 주시고 결실을 내어갈 길을 활짝주시며 최첨단과학기술의 세찬 열풍으로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은 온 나라 인민 모두가 흠모하고 따르는 절세의 애국자이다.

본사기자 림 정 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필리핀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필리핀 공화국 대통령 베니그노 씨메온 쿠히양코 아키노각하

나는 최근 귀국의 여러 지역에 들이닥친 강한 태풍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커다란 물질적손실을 입었다는 불행한 소식을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당신과 귀국정부가 이번 자연재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 남 평 양

주제 102(2013)년 1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풍고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다니엘 오와사 주 조 풍고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니엘 오와사 주 조 풍고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성원이 참가하였다.

여기에는 김형준 외무성 부상과도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하막장을 찾으시어 광산이 나아가길 밝혀주시는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는 참관자들 - 김덕혁명사작 판에서 - 본사기자 정 선 남 찍음

김성식료공 장 당조직에서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조국과 혁명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명도업적을 보여주시는 강동들은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놓고 독보와 해설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위대성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다름없어주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들끓는 작업현장에 나가 화산식경지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적극 분출시키고있다.

얼마전에도 어느 한 작업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걸고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에 대하여 뜨겁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인민들에게 보다 유

속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어머니장군님의 승고한 뜻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인민의 참된 행복이 되어 맡은 일을 더 열렬히 호소하였다.

지금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를 높은 생산성과로 충직하게 받들기 위해 날마다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과학자, 기술자들격대를 무어주시던 나날에

생산장성의 지름길

주제 64 (1975)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검덕광산(당시)을 찾으시었다.

이날 광산의 실태를 하나하나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과학자, 기술자들을 믿고 생산장성의 예비를 기술혁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광산안에 생산능력을 높이고 기술적로대를 튼튼히 다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이것은 검덕광산의 과학기술력량만 가지고서는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실정을 헤아려보시고 해당 부문 일군에게 과학자, 기술자들을 검덕광산에 내려보내어 과학기술적으로 결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그러하여 공능유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7. 1 과학자, 기술자들격대가 조직되었으며 검덕광산과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파견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격대가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정연한 사업체제도 세워주시였으며 돌격대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었다.

몸소 달아주신 돌격대

주제 67 (1978)년 2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서로 다른 전문직을 가진 과학자, 기술자들을 배합하여 돌격대를 무어 검책제철소(당시)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주요대상들에 파견하도록 하시고 돌격대의 이름도 몸소 달아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니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푸는데 기본을 두면서 집중공세로 방법으로 과학기술의 최선성과들을 받아들여 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을 돌격대의 활동방향으로 규정해주시었다.

나라의 재사로 내세워주시며

절세위인의 품에 안겨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넘쳐나는 심장의 웨침이 있다.

위대한 태양의 촉박속에 과학학의 열정을 바쳐가는 우리들처럼 궁지롭고 행복한 과학자들은 이 세상에 없다!

그들은 과학기술로 이 땅에 부강번영하는 불패의 강국을 건설할 발라는 일념을 안으시고 우리 과학자들을 끌어들여 아끼고 사랑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승업한 결정속에 삼가 되새겨본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곧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는것은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것과 같습니다.》

주제 91(2002)년 6월 어느날이었다.

3년전 이곳을 찾으시여 꼭 다시 오겠다고 하신 사랑의 약속을 지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과학원 합동본원(당시)을 찾으시었다.

이날 본원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본원을 과학연구기지로 훌륭히 꾸려놓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지치지 않고 삼아야 할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었다.

일군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본원에서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들을 하나하

대중적운동으로 되기까지

그러하여 2월 17일과학자들격대(당시)가 조직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돌격대원들의 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며 과학혁명, 기술혁명의 전초선에서 수많은 과학기술전방명들을 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요대상들에 파견된 과학자, 기술자들격대가 거두고있는 성과들을 전반적으로 료해하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기능공들까지 망라한 5. 19 기술혁신돌격대를 조직하도록 하시었다.

이것은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창조적열정을 강화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게 한 현명한 조치였다. 5. 19기술혁신돌격대가 무어짐으로써 과학연구사업과 대생산기술혁신운동이 하나로 결합되어 생산에서 전례없는 양상이 일어나게 되였다.

나라의 재사로 내세워주시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있고,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버림 실해하면 어떤 일이든 다시 굽을 수 없게 해나가는 결연한 투사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뜨거운 고무와 권력의 말씀도 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본원의 박사부연구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따뜻한 담화도 나누시었다.

박사부부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이비시정도로 자세히 알아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랜 기간 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공로를 세운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과학자 가정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갈데 대하여 따뜻이 이시시였다.

머리 흰머리가 내렸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긴 무한한 행복으로 눈을 밝히는 박사부부들, 그들의 감격과 기쁨은 그대로 온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의 감격이었고 기쁨이었다.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언제나 과학자들의 자애로운 스승이 되시고 친근한 어머니가 되시어 나아가길 환히 밝혀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와 뜨거운 은정이 있어 우리 과학기술은 높은 명마로써 솟구쳐오를수 있었으며 부강조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재 히 성

나라의 재사로 내세워주시며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이 있고,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버림 실해하면 어떤 일이든 다시 굽을 수 없게 해나가는 결연한 투사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뜨거운 고무와 권력의 말씀도 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본원의 박사부연구자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따뜻한 담화도 나누시었다.

박사부부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이비시정도로 자세히 알아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랜 기간 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공로를 세운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과학자 가정의 영예를 더욱 빛내어갈데 대하여 따뜻이 이시시였다.

머리 흰머리가 내렸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긴 무한한 행복으로 눈을 밝히는 박사부부들, 그들의 감격과 기쁨은 그대로 온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의 감격이었고 기쁨이었다.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언제나 과학자들의 자애로운 스승이 되시고 친근한 어머니가 되시어 나아가길 환히 밝혀주시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와 뜨거운 은정이 있어 우리 과학기술은 높은 명마로써 솟구쳐오를수 있었으며 부강조국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재 히 성

